

장애인 취업의 가능성과 기회를 창출하는

# 장애인과 밀터

2006. 7 월  
www.kepad.or.kr Vol. 135





## 일산직업능력개발센터-

# 펜 인터내셔널과의 교류협력을 통한 청각특성화교육

공단은 지난 2005년 7월 펜-인터내셔널(PEN-International)과의 교류협약으로 준회원 파트너십을 맺게 되었고, 그 성과로 청각 특성화교육을 위한 교직원전문연수, 학생문화교류연수, 공동조사연구 부분에 있어서 향후 몇 년간 지원을 받게 됐다.

글. 최혜은(일산직업능력개발센터 특화훈련팀)

공단 일산직업능력개발센터는 펜-인터내셔널을 통하여 미국 로체스터 공대 청각특화단과대학(NTID)의 40여 년 교육훈련 노하우를 전수받아 성공적인 교육훈련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고 있다.

친 청각장애 교육환경을 구축하고 수화통역지원 및 전공수업 교보재 제작을 통해 전문기술 습득의 이해 수준을 높이고, 부족한 기초학습능력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펜-인터내셔널은 국제 고등교육 네트워크(The Postsecondary Education Network International)로, 청각장애 학생들의 고등교육발전을 위한 대학들 간의 국제 협력네트워크로서 일본재단의 지원금에 의해 2001년 미국 로체스터 공과대학 청각특화단과대학(NTID)에 설립되었다.

펜-인터내셔널 사업의 장기적인 목표는 청각장애인들이 기술 교육과 고용에 제한받지 않도록 정보기술사회에 있어서의



정책과 실제, 사고방식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 펜-인터내셔널은 청각장애학생들의 수업과 학습 과정에 정보기술을 활용하고 교수진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또한 유용한 직업교육과정을 확대하고 이들이 통합교육환경에서 배울 수 있도록 기술과 방법들을 충족시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펜-인터내셔널은 지난 4년 동안 일본, 중국, 러시아, 필리핀의 대학들과 메인 파트너십 관계를, 체코, 태국의 대학과는 준회원 파트너십 관계를 구축해 왔다. 사업성과로 각국 파트너기관 중심 네트워크인 펜-러시아(PEN-Russia), 펜-제펜(PEN-Japan), 펜-차이나(PEN-China) 등이 결성되었고, 러시아의 경우 2003년 본 사업의 국내 전수 보급을 위하여 자국의 노동부, 교육부, 모스크바 시로부터 150만 불을 지원받았다.

### 펜-인터내셔널 사람들

미국 로체스터 공과대학 청각특화단과대학(NIID)의 건물에 위치한 펜-인터내셔널은 7명의 직원을 두고 있는 작은 조직이지만,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은 결코 작지 않다.

그 곳에서 청각장애인 당사자이며 전산직으로 일하고 있는 요시다(M. Yoshida)는 1998년 일본에서 고등학교 졸업 후 미국수화도 모른 상태에서 유학 와, 로체스터 공대 정보기술과에 입학하였다. 그는 "일본에서는 청각장애를 장애로 보고 숨기는 '소문자 deaf' 이었으나, 미국에서는 청각장애를 장애로 보기보다 하나의 다른 문화로 인정하는 분위기에서 청각장애인임을 당당히 드러내는 '대문자 Deaf' 가 되었다"고 한다.

우연한 기회로 펜-인터내셔널에서 업



펜-인터내셔널의 학생문화교류연수 장면

무보조를 하게 된 그는, 현재 스스로 펜-패밀리(PEN-Family)로 일컫는 조직의 정직원이 되었다. 국제 네트워크이기에 각국 기술기준을 고려해서 일해야 하는 부분이 가장 어렵다는 그는, "각국 학생문화교류연수를 통해 만나게 되는 학생들로부터 진심어린 편지를 받을 때 가장 보람을 느꼈다"고 한다. 연수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청각장애인 캐빈(D. Kavin)은 수화통역 및 대필지원을 받으며 시카고 대학을 졸업하였고, 우연한 기회로 2004년부터 펜-인터내셔널에서 일하게 되었다. 또한, 펜-인터내셔널의 책임자인 드카로(Decaro)박사는 미국과 일본에서처럼, 한국에서도 청각장애 고등교육을 위한 국내 네트워크인 펜넷-코리아(PEPnet-KOREA)가 결성되기를 기대해 본다"고 덧붙였다.

### 청각특성화교육을 위한 공단의 노력

공단 일산직업능력개발센터는 펜-인터내셔널을 통하여 교육훈련노하우를 전수받아 교육훈련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훈련생의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위해 사회성 함양 및 직업준비 교육에 비중을 두고, 펜-인터내셔널의 지원으로 우수청각장애 학생들에게 국제적인 학생문화교류연수의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교육은 훈련생을 모집하여 올해 9월부터 메카트로닉스직종(기계 직종)으로 청각특화교육훈련을 시작할 것이다.

공단은 펜-인터내셔널의 파트너기관으로서 역할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훈련직종을 확대하고 유관기관에 경험을 공유하며 노하우를 전수 보급해 가고자 한다.



펜-인터내셔널 직원 캐빈(D. Kavin) 과 요시다(M. Yoshida)와의 인터뷰 기념 촬영